

◆ KOEMA 消息 ◆

'95 定期總會 및 품질경영 실천 결의대회 성료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2月21日 한국종합전시장(KOEX) 4층 회의실에서 회원업체 대표 120여명과 통상산업부 鄭海舟차관보등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19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진흥회에서는 올해 사업목표를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정보수집·전파기능의 활성화,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촉진, 중전업계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및 자립기반의 안정적 구축에 두고 전기공업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과 세계화·개방화에 대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행히 전기업계는 한전으로부터 기술개발기금으로 약 500억원을 이관 받아 민간기금화하여 진흥회에서 운용토록 되어 있어 진흥회에서는 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방안을 마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시킬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7月 전기업계의 수요창출과 국제간의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된 『제1회 서울 국제종합전기기기전』이 성공리에 끝남에 따라 올해는 내년 5月 20日로 예정돼 있는 제2회 전시회가 명실상부한 국제전으로 자리잡고 전기업계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준비활동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통한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 미국전기공업협회(NEMA)등 주요국 관련단체와의 업무협조 약정 체결과 교류를 정례화 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사전조사 활동 등을 강화하는데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전기산업을 2천년대 세계 8위권으로 진입시키고 수출산업화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21세기를 향한 중전기 산업의 발전전략』프로젝트는 예정대로 금년 5월말 완료됨에 따라 중전업계의 현재와 미래를 갈음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중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전기 시험장 건설, 각종 제도 개선활동도 꾸준히 추진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모·수급기업간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중전기 기술선진화 업체 견학과 대단위 수요처 방문활동도 올해 주요사업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96 전기공업 동향 및 전망” 조사·자료를 발간하는 것을 비롯, “동남아 주요국의 전기공업 동향” 자료발간 등 홍보·출판 업무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개최된 품질경영(QM)실천 결의대회에서는 전 전기업계 임·직원이 세계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영의 조기정착과 확산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품질수준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해 전 전기업계가 품질경영 운동에 솔선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 내용: 표2 참조>

한편 이날 총회에서 통상산업부 鄭海舟 차관보는 추사를 통해 WTO체제 출범과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일류가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맡은 분야에서 세계 일류화를 향한 능동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고 정부에서는 중전기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차세대 전력기반 구축을 위한 「21세기를 향한 중전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특히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5백억원 규모의 기금확보와 중전기 시험설비 설치, 기능공양성센터 설립 등 중전기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체 수의계약품목, 수입선다변화 품목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하면서 2천년대 중전기 산업이 세계 8위권으로 도약하여 세계 중심에 우뚝서는 풍요롭고 편안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 전기인들이 노력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전진의 발걸음을 재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산부 차관 초청 간담회 개최 - 電機業界, 애로사항 등 건의 -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2月 27日 팔레스호텔에서 중전기 업계 대표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朴雲緒 통상산업부 차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정부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1년 부터 중전 산업 발전을 위해 한전 기술개발자금 약 1천억원을 지원해 주고 특히 기술개발 완료후 상환되는 기술료 500억원 규모를 민간기금 형태로 기금화하여 취약한 중전산업 발전기금으로 조성토록 배려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가기간산업인 중전산업 발전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연간 소요량 27만톤의 약 30%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전기 강판의 경우 지난 1月 일본 교베지역의 지진피해로 수급불균형이 생겨, 전기강판의 가격인상이 우려되고 더우기 국내 사용량 부족분에 대한 공급방안이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전기강판의 가격안정과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과 국제 전기동 가격의 인상으로 국내 전선류 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 전선가격의 안정이 시급한 바, 국내 전선가격의 안정을 위해 동광석, 조동(粗銅) 등 원료와 전선제품의 수입관세율(현재 5%)을 무세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전기 업계의 80%이상이 경인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전 기기 제품의 개발시험시 창원의 전기연구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반, 인력 낭비등의 문제점이 있어 업계가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인지역에 개발 시험 설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한전이 업체와의 발전소, 변전소용 기자재 구매시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계약금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물품 납품후 시운전후에도 성능보장 유보금조로 현금으로 지급을 유보(2~5년간)하고 있어 이로 인한 업체의 자금경색 유발과 금융비용 부담 등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전만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능보장 유보금」제도를 폐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토록 하여 중전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단회에서 업계는 인력난 해소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기능공 고용 대책 등으로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해 가고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차차관은 답변을 통해 변압기용 규소강판의 안정공급을 위해 포철의 생산설비 증설여부를 조기에 검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금년에도 공업발전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한전 연구개발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중전기 업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중전기 시험설비 건설은 그동안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97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방침을 확정했으며 「성능보장 유보금」 제도도 폐지 또는 보증증권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어 금년 상반기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전선 원자재의 가격안정과 인력난 해소 문제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시일 내 해결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간단회에서 차차관은 수입개방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수의계약 품목,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사전 예시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임을 밝히고 업계에서도 이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에 힘써 줄 것과 내수위주에서 탈피, 신제품 개발,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